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신흥성*, 강민정, 이다래, 김도영, 신성욱**, 김경모***

국문초록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연대에 기초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우리는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시장원리가 지배적인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 발달하였고, 특히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0년 후반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 제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사회적기원진흥원에서는 교육과정 표준안과 교과서 및 해설서 등을 제작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살펴보고 자료구성의 적절성,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이를 통한 자료구성,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표준안, 교수학습자료, 적합성 분석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일반사회전공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교신저자임.

I. 서론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연대에 기초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우리는 보통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인류의 모든 경제 형태들은 그 자체로서 모두 사회적 성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경제는 사회적 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칼 폴라니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단순한 시장의 원리를 넘어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시민사회/공동체)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국가)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시장원리가 지배적인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 발달하였고, 특히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0년 후반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 제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사회적기원진흥원에서는 교육과정 표준안과 교과서 및 해설서 등을 제작하였다.

본 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자료 구성의 적절성,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 자료를 중심으로 교재구성의 적절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하고자 한다.

먼저 I 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 II 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III 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현황, 성격 등을 살펴본 뒤,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과 사회적 경제 교과서,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각 자료들의 초등학교 내용을 단원별로 상세히 검토하였고, V 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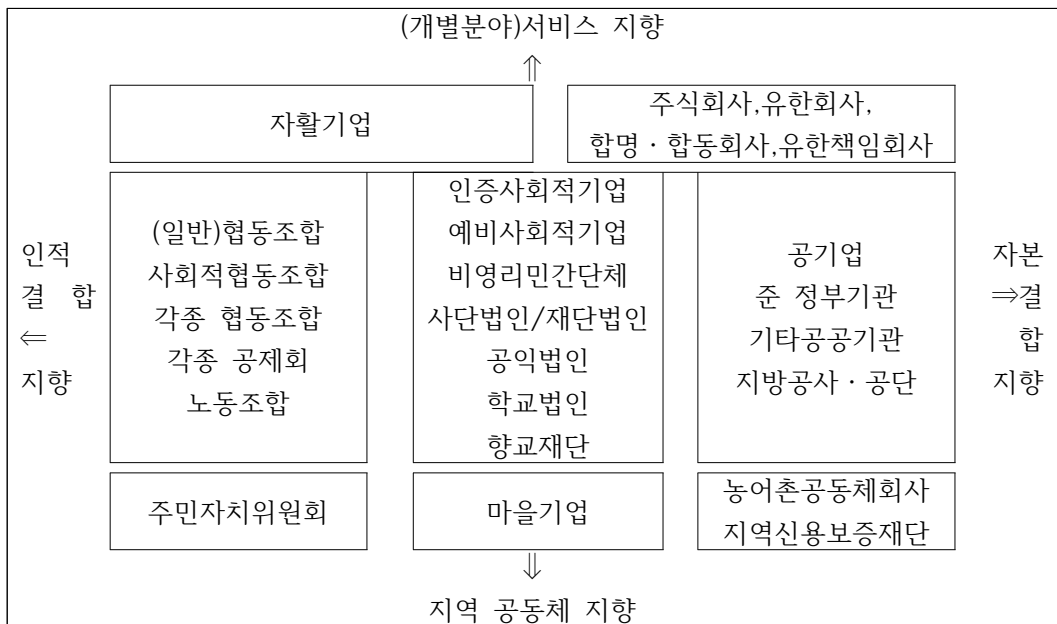
1. 사회적 경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 비하여 다층적인,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매우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어렵게 한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민주, 시민, 자율, 참여, 연대, 호혜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 시장, 공동체/시민사회라는 여러 조직과 결사체들의 중첩적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의 다양한 원리와 가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기 어렵게 한다.

(그림1) 한국 사회적 경제 개념의 도식화(Mapping)*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발달의 초기 발달단계부터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장경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을 생산·공급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적 경제의 흐름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존의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민단체 중심의 접근 등 다양한 조직과 가치들이 개입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경제는 일률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혼종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 경제부분을 아래와 같이 Mapping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경제

* 김의영 외(2016),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p.26, 서울: 푸른길

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 제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제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하에 사회적 기업 3,000개 육성을 목표로 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수준에서도 많은 조례가 만들어 졌다. 사회적 경제를 명시적으로 지칭한 조례는 모두 88개(서울, 광주, 대구, 인천시, 경기, 강원, 전남, 충남)이며 규칙은 12개이다.(2016.8. 기준) 그리고 현재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여 현존 일자리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 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2.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현재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 교육 표준안 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 활용해설서」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만든 2016년에 만든 「사회적경제」가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만든 표준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자료와 인정 도서 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졌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만든 사회적 경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해설서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안은 각 중영역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고, 내용체계, 영역별 교육과정 해설, 활용방안 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각각 나누어 제시하여 준거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 자료, 중학교 사회적 경제,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 등 총 5권이 만들어 졌다. 이중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중 초등학교 부분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그리고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자료는 목적이나 활용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17차시 분량으로 5·6학년으로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어·사회·도덕 등의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고려하여 지식적인 측면 보다는 가치·태도 측면을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제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내용 선정, 내용의 범위, 내용의 배열에 있어 다양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라는 단일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념 소개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자료 모두 나눔과 공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기업과 경제에 대한 소개, 생활속에서의 실천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다만 표준안은 사회적 기업과 소비, 공정무역등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결과나 교과서 구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각 단위별 세부내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1)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 과 「사회적 경제」 비교

자료명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 활용해설서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제작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제작연도	2016	2016~2017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사회, 국어와 연계 지도)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사회, 국어와 연계 지도)
분량	17차시	17차시
내용	내용 체계 및 해설	교과서 및 해설서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대단원	중단원	단원 주제		
단원 구성 (초등)	I. 사회적 경제의 의미	1.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필요성(4)	1. 일상생활에서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 공감과 나눔으로 시작하는 사회적 경제	1. 나의 감정 이해	나의 감정 표현(1)		
			2.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다.		2. 친구의 감정 공감	친구의 감정 공감(1)		
			3.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감과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서로 도와주는 마음	나눔의 삶(1)		
	II.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 원리와 사회적 경제의 영향	2.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 원리와 유형(5)	4.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가 중요함을 이해한다.	2. 경제활동과 사회적 경제	1. 돌고도는 경제	1. 함께 살아가는 우리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예(3)	
			5.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동으로 운영됨을 파악한다.				2. 세계는 한 가족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3)
			6.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3. 세계는 한 가족	국제 구호와 세계 시민의식(2)
			7.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가의 역할을 탐구한다.					
	III. 시민 참여와 사회적 경제의 발전	4. 사회적 경제 활동의 실천과 참여(5)	8.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생속의 사회적 경제	1. 우리 학교 협동조합	1. 우리 학교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의 이해(2)	
			9. 윤리적 소비 사례를 조사하고 윤리적 가치 판단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2. 우리 마을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의 이해(2)
			10. 공정무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사례를 조사한다.				3.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이해(2)

Ⅲ. 연구방법

1. 주요 분석 내용

본 글에서는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 1)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이 교과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가
- 2) 교과서 전체 구성이 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및 교육체계에 맞게 잘 구성되었는가
- 3) 교과서 구체적 내용(학습목표, 도입, 학습활동 등)에서 재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4) 교수·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참고 자료의 적합성 등)에서 재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2. 대상 학년에 대한 이해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과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수-학습 자료는 모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도덕, 사회, 국어 과목과 연계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과서의 수준 적합성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이다.

사회과의 경우 3·4학년에서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5학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다루고 있다. 도덕과에서는 5·6학년에서 감정의 소중함·공감·배려·봉사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사회적 경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표준안에서도 이들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Ⅳ. 단원별 내용 분석

1. 전체 구성에 대한 분석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이 제시한 사회적경제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경제 교육 내용이 시장경제와 정부부문에만 한정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 교육 및 사회과 교육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거나 사회적경제가 경제 원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존 경제 교육이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 뿐 아니라 공감능력, 상호작용능력, 협력하는 능력이 강조되는데 이는 사회적경제에서 강조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 자체의 변화에서도 사회적경제 교육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합리적 경제인의 전제가 도전받으며, 경제학에서도 공정성, 배려, 이타성, 연대와 협력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겪으며 사회적경제가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교육은 경제 문제에 대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난 이해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의의 또한 갖게 된다.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은 위와 같이 밝히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사회적경제 교육은 지식적 측면보다는 가치와 태도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과서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3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원 공감과 나눔으로 시작하는 사회적경제, 2단원 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3단원 생활 속의 사회적경제’이다.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 1단원은 사회적경제 교과서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지식보다 가치와 태도를 강조한다고 하였지만, 1단원의 구성은 ‘사회적경제’ 교과서라기보다 도덕교과서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1단원은 ‘나의 감정 이해, 친구의 감정 공감,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필요성 인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하는 1단원의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 인식, 사회적경제 의미 이해와 사회적경제 다양한 사례 조사’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1단원에서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의 의미 이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머지 2단원 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3단원 생활 속의 사회적경제의 구성은 교육표준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안이 제시하는 교육체계와 비교적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1단원

1)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비교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에서의 1단원은 대영역 사회적경제의 의미에서 중영역인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배우고자 한다. 1단원에서는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조사코자 한다.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과서에서의 1단원은 공감과 나눔으로 시작하는 사회적경제이며, 이 단원은 나의 감정 이해, 친구의 감정 공감, 서로 도와주는 마음, 총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된다. 교육표준안과 교과서를 단원만 두고 비교하였을 때 일상생활에서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을 배운다는 표준안의 성취기준은 달성하였으나,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

2)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분석 및 평가

첫 번째 소단원 나의 감정 이해부터 보려 한다. 이 단원은 내 안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현함을 학습목표로 삼는다. 사회적경제에서는 공감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한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존재하는지 인식하게 한다. 그에 따른 학습활동인 **어제 하루 동안 나의 감정 되돌아보기**에서 비슷한 감정을 가진 친구끼리 모둠활동을 하는 것은 서로가 적절한 감정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좋다. 또한 **상황에 적절한 감정 표현하기**에서 제시된 상황 카드는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경험할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두 가지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공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단원 친구의 감정 공감에서는 친구의 감정에 공감하는 방법을 알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앞의 소단원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 소단원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례를 배운다.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 붙이기**인 학습활동에서 그림과 관련된 실제 신문 기사를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 학습활동인 **공감 마니토 활동하기**에서는 상황이 아닌 감정에 중점을 두고 친구에게서 원하는 감정 표현을 찾아 마니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하여 실천하는 예로 적절하다.

마지막 소단원은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들을 찾아

보고, 배울 점을 발견해본다. 이 단원의 학습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가치 찾기**이며 앞의 학습활동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찾는 사전 과제가 제시된다. 예전과는 달리 아파트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요즘, ‘우리 주변’이라고 한정짓기보다 방송이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도 찾아보도록 범위를 확대해도 좋을 듯하다.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에서의 대영역 사회적경제의 의미에서는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1단원에서는 공감과 나눔을 배우는 것에만 그쳤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학습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해 보인다. 사회적경제의 가장 바탕이 되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및 나눔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출발점이 되어 공감과 나눔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2, 3단원에서 다룰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의의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기존의 시장경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1단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교사의 학습 방향에 따라, 자칫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 자료 분석 및 평가

1)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신호 sign’ (2012년 7월 9일)

간단한 그림을 통해 아이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검사를 통해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감정을 알게 해주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 ‘공감’과 ‘나눔’이라는 것을 배우기는 어렵다.

2) 참고 동영상 자료 : 영화 인사이드아웃(Inside Out, 2015)

애니메이션 영화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흥미를 끌기에 좋은 자료이다.

-VOD명 마음의 탄생 : 감정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풀어냈다.

-VOD명 슬픔이의 위로 : 사회적경제에서 강조하는 ‘공감’이 기쁠 때 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3) 읽기 자료 : 자기조절이란 무엇일까?

1단원 수업의 주요 개념인 감정 이해,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감정 조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 조절하여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4)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신비한 능력’ (2013년 9월 3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건축가 루이스 칸, 동물학자 제인구달의 공통점은 ‘내가 만약 너라면’이다. 이는 공감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동영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감정 등을 짐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해준다는 점이 1단원의 참고 영상으로 적합하다.

5)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공감 무능력자’ (2008년 4월 14일)

앞의 동영상인 ‘신비한 능력’과 마찬가지로 공감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정 반대의 내용이다. 신비한 능력에서 공감을 통한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면, 이 자료에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였을 때의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신비한 능력’과 ‘공감 무능력자’를 함께 본다면 공감이 더욱 대비되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것 같다.

6) 참고 동영상 자료 : 고3이 “너무 힘든데 안아 주세요”라고 한다면

고3을 겪은 학생들이라면 더욱 와 닿을 소재의 동영상이다. 공감의 과정과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적합한 영상이다.

7) 읽기 자료 : 경기도 용인시 ○○초등학교 운동회

두 번째 소단원 친구의 감정 공감의 학습활동 사진에 어울리는 제목 붙이기와 함께 보아야 하는 자료이다. 공감 부분에 적합한 읽기 자료이지만, 교수·학습자료보다 교과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8)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오늘의 온도’ (2013년 12월 26일)

남극 탐험을 떠난 두 명의 탐험가가 ‘체감 온도’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다. 기온과 풍속 뿐만 아니라 행복했던 기억, 사랑받는다느 느낌이 추위를 견디게 하는 인내심을 갖게 한다. 내용은 좋지만 소단원 ‘서로 도와주는 마음’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인다.

9)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따뜻한 밥 한 끼’ (2015년 11월 3일)

학교를 늘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힘을 모은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결국 청소 노동자들의 식대와 시급이 올랐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청소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밥을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온다. ‘서로 도와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10) 참고 동영상 자료 : 시사매거진 2580 ‘메이드 인 골목’ (2015년 11월 22일)

창신동 봉제골목에 두 명의 젊은 디자이너가 골목길 봉제 사장님들을 도와 상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다. 마지막 소단원인 ‘서로 도와주는 마음’의 적절한 예시임을 나타낸다. 시사매거진 동영상이지만 영상과 내레이션이 어렵지 않아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해하기도 쉽다.

3. 2 단원

(1)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비교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에서 제안한 2-1단원은 경제의 순환이라는 대영역 안에 수입, 지출의 개념과 지역먹을거리운동, 공정무역운동과 같은 중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단원의 목표는 경제활동으로 수입, 지출, 기부가 있음을 학습하고 지역먹을거리운동과 공정무역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과서의 2-1단원은 소단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개념알기’ ‘지역먹을거리운동의 의미 알기’ ‘공정무역의 중요성 알기’으로 구성된다. 각 소단원의 학습 활동으로는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 말하기, 생활 속 수입, 지출, 기부 활동의 예 찾아보기 / 비빔밥 재료 목록 작성하기/지역먹을거리 운동의 의미 찾기 , 공정무역의 필요성 찾기 /공정무역 홍보광고 제작하기’가 있다.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에서 제안한 2단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원리와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대영역 안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원리의 유형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두개의 중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단원의 목표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추구가 중요함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2번째와 3번째 소단원에는 ‘돌고 도는 경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계는 한 가족’으로 구성된다.

제가 맡은 두 번째 세 번째 소단원의 학습 활동으로는 ‘가치 경매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신문 기사 읽고 함께 생각해 보기, 체인지 메이커 벽 만들기 활동에 참여해 보기 / 협동조합 특징 알아보기, 우리 지역 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사해 보기 / 국제 구호 단체에 대하여 알아보기,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하여 알아보기’가 있다.

(2)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분석 및 평가 용 분석

전체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선행과 사회적경제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사회적경제는 착한경제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너무 많은 분야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지고 있는 것 같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를 기르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공감을 통해 서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수업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사회적 경제 교육 내용구성은 초·중·고 계열성을 고려하되, 사회적경제 교육의 지식적인 측면보다 가치·태도 측면을 강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라고 표준안에 제시되는데 반해 너무 어려운 문제와 개념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인성을 기르는 것은 좋은 시도처럼 느껴지지만 자칫 사회적경제를 자선사업이나 기부처럼 느끼게 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는 것 같다. 2-1장의 제목인 돌고 도는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얼마나 연결 될지 2장의 로컬푸드 운동을 국내의 경제활동과 조금 더 연결 지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교수 과정안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상황들이 많았고, 그로 인한 문제제기나 인식에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으면서도 짧은 수업 시간 내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념과 동시에 생각을 심어주기에는 수업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모든 경제활동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만능열쇠 같은 가치관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토론해보는 과정들도 과정 안에 담기면 좋을 것 같다.

2-1단원 돌고 도는 경제에 대하여 바라본다. 먼저 우려가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비단 현행의 학교교육이 현실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교육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은 소단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수입과 지출의 개념알기 2. 지역 먹거리 운동의 의미 알기 3. 공정무역의 중요성 알기라는 소단원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첫 장인 37p에서는 그림으로 각 소단원을 설명하려 하지만 소단원 1을 제외하고는 그림으로 설명되어지기 부족해보인다. 지역먹거리는 비단 트럭장수만이 판매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무역이 수출국의 복지증진과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자료 구성인 것 같다. 두 번째 페이지인 38p의 교수·학습 과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입과 지출과 기부의 개념을 확립할 만한 과정인지가 먼저 의구심이 든다.

도입 부분의 생각나누기는 ‘우리 집의 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기’ 라는 주제를 제시하는데 가계의 수입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수입’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왜 교과서는 수입의 개념을 알아보는 단원에서 가계의 수입을 먼저 제시하는지

재고해보아야한다. 물론 학생들이 이미 ‘수입’의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나 단원의 목적이 수입과 지출의 개념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면 가계가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에 대해서 먼저 인지 할 수 있게 제시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출의 부분 또한 초등학생들은 가게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출에만 두드러지게 반응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 상황에서 각종 공과금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모두 지출이지만 그저 장난감을 구매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는 현상을 지출이라고 가르쳐도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기부에 관한 부분은 “실제 사람들은 선택에 직면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전뇌적 사고를 통하여 때론 누군가와 협력하고, 선의의 기부도 하며 심지어 목숨 바쳐 타인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능력이다.” 라고 설명되는 표준교육안의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교과서의 맥락상 수입과 지출 그리고 기부는 동떨어지는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적통합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닌 세금을 통한 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부’의 개념을 그저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만난 걸인에게 백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39p의 실제 교수 실행 항목들의 질문들은 위의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잘 짜여진 수업안인 것 같다. 교수법을 통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돕는다면 좋은 실행인 것 같다. 다만 저축은 지출인지에 대한 고민은 든다. 또한 돈의 기부가 아닌 다른 기부의 예에서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하는 예가 나오는데,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기부가 도시락 배달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봉사와 기부의 개념을 혼재한듯하다. 질문 6번을 통해 좀 더 다른 기부의 개념에 대해 잘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동영상은 헬퍼스 하이와 테레사 효과라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제시하는데, 이 또한 기부와 봉사의 혼란을 야기하며 참고자료가 약간 더 사회적인 관계나 교감을 위한 자료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봉사가 나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결론 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설명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전개 부분에서는 돌려 말하기와 모둠 내 토의라는 교수방식을 사용하는데, 기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제일 것 같다. 경험과 연결 지어 서로 경험을 나누는 수업 방식 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방식의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수업 방식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2장 지역먹을거리 운동의 과정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경험을 서로 나누며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한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1장과 2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전반에 걸쳐 수업방식은 비슷하다. 왜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의 방식이 많을까.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

2장 지역먹거리 운동 부분은 정말 사회적 경제를 배우는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아이쿱 생협 또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더 이상 지역먹거리만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다. 시장에서 필리핀에서 온 바나나와 타지역의 특산물을 만나며 미국산 소고기 또한 존재한다. “시장의 특징에 대해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찰제는 아주 중요하다. 유통과정이 생략되어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설명은 대형마트들의 자체브랜드로 인하여 맞지 않는 설명이 되었고, 상품의 선도, 농수산물의 원산지로는 더 이상 시장과 대형마트를 가를 수 없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줄 뿐 바른 시각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로컬푸드 운동이 왜 좋은지, 어떠한 방법으로 식품의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시장과 대형마트를 구분 하는 것은 관련성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 스위스의 협동조합 미그로는 대형마트와 같이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그로는 사회적경제가 아닌가? 이런 혼란을 주는 수업방식은 학생들이 중,고교로 진학했을 때 배우는 부분에서 혼란을 더 할 뿐인 것 같다.

3장 공정무역 부분에서는 공정무역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른 국가의 어떤 노동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일 것이다. 공정무역은 그저 자선사업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값을 지불하는 것이며, 공정무역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국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파키스탄의 6세 아동들의 축구공 공장, 서아프리카 카카오 농장, 남미의 커피농장 등과 같은 노동력 착취의 현장을 개선하고 공정무역 시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대개 소비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역할과 개념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내가 교사라면 공정무역 초콜릿과 일반 기업의 초콜릿을 블라인드로 맛보게 한 뒤 맛과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지만, 이 초콜릿을 구매하므로 인해 변화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 읽기 자료로 등장하는 사회적기업가 비비엔 하의 이야기는 한국의 학생들 또한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경제에 주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정안에서 공정무역의 홍보광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방식은 기대가 되면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 지역별로 아이들의 미디어 활용능력도 차이를 보일 것이며 ‘광고’라는 매체를 먼저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복잡한 수업이 될 것 같다.

초중등 교육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서 비경제 교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가치들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표준안의 전망은 바람직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끼워 넣지만 초등학생들에겐 사회적 경제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수업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가능성이 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의 방법들에 대해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해결방법들이 어찌면 더 직관적이고 확실할지도 모른다. 사회적경제는 예산의 핑계를 대면서 발전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단원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을 추리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가치 경매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항목을 정하고 각자가 낙찰 받고자 했던 이유를 발표해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의 가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문기사와 체인지 메이커 벽 만들기 활동을 통해 미래에 기업가가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참고 동영상자료와 읽기자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과 우리 지역 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사하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세계는 한 가족 단원에서는 구호 단체의 의미와 국제 구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아보고 세계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교육표준안에서 제시된 것을 살펴보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을 사회적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을 통해 지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교과서 처음부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학습활동3에 협동조합 특징 알아보기에서 협동조합과 영리 기업의 차이점을 학습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표준안에 제시된 것처럼 처음 부분에 소개되었다면 개념을 학습하는데 더 적절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 표준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사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 협동조합과 영리 기업의 차이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표준 교육과정 내용이 추구하는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운영됨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학습활동 “우리 지역 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사해 보기”를 통해 조사학습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유도하여 표준 교육과정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들을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 우리가 지녀야 할 사회적 가치·태도에 대해 모듈별로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참고 동영상 자료 3가지는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탐구활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나의 세계 시민 의식 점수를 매겨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봄으로서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관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마지막부분에서 한국의 ‘제노포비아’라는 읽기자료가 소개되는데 국제 시민 의식과 관련되어 다문화가정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적절한 자료가 될 순 있으나, 자칫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 혼동을 줄 수도 있고 과유불급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사회적 가치를 가치 경매 활동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아 갈 수 있고 사회적 가치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단어를 학습할 때에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학습부분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난이도수준이라 여겨진다.

학습활동 신문 기사를 읽고 함께 생각해보기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정해 조사 학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질문내용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초등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영상과 읽기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을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해보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도록 짜여져 있다. 적절한 참고자료와 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단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지는 것은 요즘 교실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방법이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아직까지 의미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말하기가 어렵고 가르치는 교사입장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확고한 교수방법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왜 등장하였는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의 공통적 개념 등의 기초적인 학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라는 교수방법에 대해서 학년에 따라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유익한 사회적 경제 교수방법을 바라본다.

3)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 자료 분석 및 평가

(1) 읽기 자료 : 당신의 기부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제목의 읽기 자료에서도 기부와 사회적경제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온다. 기부가 좋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도덕 교과서, 바른생활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도시아이, 시골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서관’ 제목의 읽기자료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가 출처인데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이 사회적경제를 학습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을 도와주는 마음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어 1단원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참고 동영상 자료 : 작은 힘 1부 - 나’란 제목의 참고 동영상 자료에서는 선행을 통해 장수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경제는 선행을 통해 장수하고자 시작 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교과서에 필요한, 적합한 자료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식채널e ‘과란 스웨터의 여행’란 제목의 동영상 자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학습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기에는 다소 내용이 광범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 읽기 자료 :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운동 실천 가이드’란 제목의 읽기자료에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23%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국가에서 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 경제와 결부 될 문제인지 아니면 FTA와 같이 시장경제와 결부할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용 중 친환경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 먹을거리가 왜 꼭 친환경 먹거리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환상이며 왜곡된 자료이다.

이외에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은행-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과 유누스’(표준안자료)란 제목의 자료를 읽음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누스의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표준안자료에 탐구활동으로 첨부되어 있다.

(4) 참고 동영상 자료 : ‘착한 초콜릿’라는 제목의 동영상 자료는 참고 자료 중 가장 교수 내용을 뒷받침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었다. 공감을 형성하기 적합한 문화의 자료. 한국의 학생들이 초콜릿을 사먹을 때 마다 생각하게 만들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①유니세프의 영양실조 어린이 돕기, ②세계 최대 국제 구호 단체 월드비전 60년, ③네팔 아이들이 보낸 동영상 편지 등의 영상을 통해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니세프, 국제 구호 단체 월드비전, 국제구호 NGO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 또한 앞서 학습한 국제구호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비교할 수 있다.

(5) 읽기 자료 : ‘미국 9세 소녀, 사회적기업가 된다’는 제목의 읽기자료는 박탈감과 자괴감을 남기는 자료가 판단된다. 한국의 9세 아동이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가? 이 자료는 9세 아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료이다. 아이들은 항상 도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진염병 영양실조... 치료 손길 못 미쳐 너무 힘들었다.’는 제목의 자료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하는 일’내용을 학습할 때 필요한 읽기자료이다. 국경없는 의사회(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활동가 이영수 간호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간호사가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 내전국가에서 보인 희생과 봉사정신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

4) 소결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는 표준안은 큰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실제 교수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교과서는 너무 작은 부분들을 짚고 있는 모습을 띈다. 사회적경제는 특별한 주제이지만 특별하지 않게 교수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교과서의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구성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이 경제 및 경제 원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활동으로 소개되어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을 우려가 발생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려는 사고를 깨고 다양한 가치들이 가지는 의의들이 경제학 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한다. 이로 인해 공정성, 이타심, 연대와 같은 심리적 경향들이 시민활동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경제 초등학교용 교과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개념과 교수를 위한 길이 제시되어야한다.

4. 3단원

1)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비교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에서 제안한 3단원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라는 대영역 안에 사회적경제 활동의 실천과 참여라는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단원의 목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 윤리적 소비 사례 조사를 통해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 파악, 공정무역 의미 이해와 사례 조사로 세분화된다.

초등학교용 사회적경제 교과서의 3단원은 소단원으로 '우리 학교 협동조합, 우리 마을 협동조합,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다. 각 소단원의 학습 활동으로는 '학교 생활의 불편 사항 개선해 보기, 우리 학교를 위한 협동조합 만들기 /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 찾기, 우리 마을의 문제점 해결 방법 찾기, 마을 협동조합 모의 활동 해보기 / 재능 기부 나무 만들기, 사랑 나누기 활동하기,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영향 생각해보기, 사회적기업 모의 활동 해보기'가 있다.

2) 「사회적 경제 교육표준안」 과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과서 분석 및 평가

교육표준안에서 강조하는 성취기준, 즉 학습목표를 보면 학습 대상자들을 '소비자'로 보고 '윤리적 소비 행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실천과 참여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과서의 경우, 학습 대상자들을 '소비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조직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비록 교과서가 교육표준안이 제안하지 않은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단원을 구성하고, 학습활동을 조직하였지만 학습 대상자를 더 능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는 활동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교과서 3단원의 구체적 내용에서 비판할 만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단원 2의 도입에서는 가난했던 마을이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연 2억의 매출을 올리는 부자 마을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보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는데 이는 자칫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에 '연 2억의 매출'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3) 초등학교용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 자료 분석 및 평가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1) 읽기 자료 : 기사글 ‘00초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제시된 기사글은 성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들 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초등학생, 대학생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참고 동영상 자료 : 다큐멘터리 ‘협동조합은 학교다’

이 동영상 자료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보기에는 수준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공교육 혁신운동으로서 영국의 협동조합 설립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교육 관계자 성인들을 위한 동영상 자료이다.

(3) 읽기 자료 : 친환경 학교 협동조합 사례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친환경 학교매점에 관한 자료이다. 학생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학생들에게 소개하기에 좋은 자료일 것이다. 다만, 출자금, 이사회, 정기총회 등 다소 전문적인 용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4)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웰컴 투 벤포스타’ (2006년 5월 1일)

어린이들의 자율성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도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5) 읽기 자료 : 책에 나오는 일화 소개 글. ‘꿈이 맺히는 나무 밑 그늘 학교’

신분제가 남아있는 인도의 빈곤한 마을에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나무 밑 그늘 학교에 대한 내용이다. 마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소외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 해결 방법 찾기’ 학습활동에 적합한 읽기 자료이다.

(6) 참고 동영상 자료 : ‘세바시 15분’에 소개된 삼각산 재미난 마을
마을 협동조합의 실제 자료로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7) 읽기 자료 : 협동조합 사이트에서 발췌한 ‘협동조합 온리’ 사례

쓸모없는 폐종이 활용, 전북 지역의 전통 한지 문화 복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이다. 글에 포함된 어려운 단어들 이 있지만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각색하여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이다.

(8) 참고 동영상 자료 : 지식채널e '산타모니카 3번가의 기적', '어떤 설문조사'

'산타모니카 3번가의 기적' - 유명 음악 프로듀서가 전 세계 거리의 악사들의 음악을 모아 앨범을 만든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랑 나누기 활동하기'의 참고 자료로 소개되었는데 전 세계의 음악을 한 데 모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전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어떤 설문조사' -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어린이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가난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에 대한 자료는 '사랑 나누기 활동하기' 학습활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전파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9) 읽기 자료 : 사회적기업의 사례

- 생수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정수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벨루워터'에 대한 소개

판매 수익의 기부 뿐 아니라 제품 생산에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사례로 적합하다.

-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잡지, 빅이슈 소개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빅이슈 판매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는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멕시코 착한 영화사, 시네팍

문화적 소외 계층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로 영화는 초등학교들에게도 친숙한 것이므로 적절한 사례로 보인다.

4)소결

분석의 틀에 따라 3단원을 총평해보자면, 교육표준안 3단원은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의 실천과 참여를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3단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사회적 경제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 두 자료 모두 다양한 학습활동과 자료들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대해 학습하도록 비교적 잘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수준 적합성, 표준안에 따른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체계적 구성, 내용적 측면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였다.

먼저,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교

사회적 경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교육과정 표준안 적합성 분석 : 초등학교용 자료를 대상으로

과서 소단원 2의 도입 부분에서 가난한 마을이 협동조합을 통해 2억 원의 연 매출을 올렸다고 강조한 부분은 초등학교용 교육 자료에 구체적 액수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의문을 남긴다. 이 외에도 교수·학습 자료에서 제시된 참고 동영상 자료 ‘협동조합은 학교다’라는 다큐멘터리는 협동조합 설립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교육 관계자 성인들을 위한 자료로 더 적절했으며, 친환경 학교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읽기자료에서 사용된 전문용어는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워 보였다. 다음으로 교과서 구성에서 교육표준안이 제시하는 성취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교과서가 사회적 경제 행위자 중 소비자의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의 구체적 내용 부분에서 앞서 이야기한 소단원 2의 도입 부분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교수·학습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서 참고 동영상 자료로 제시된 ‘산타모니카 3번가의 기적’이나 ‘어떤 설문조사’는 사회적 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고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V. 결론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였고,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혼종성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교재구성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가 경제원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고,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선행과 혼동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료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들은 모두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고, 17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육현장에서는 별도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본 자료를 선정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 교과서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에 비추어 본다면 학생들이 배울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또다른 한 부분으로써 다룬다면,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기본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학생들의 실제 경제생활이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의영 외(2016),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 푸른길

김의영 외(2016), 동네안의 시민경제. 서울: 푸른길

박도영(2016), 사회적교육과정 표준안, 미발간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2016), 초등학교 사회적 경제 교과서, 서울: 이오북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2016), 초등학교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 서울: 이오북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2016),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과서, 서울: 이오북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2016), 중학교 사회적 경제 교사용지도서, 서울: 이오북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2017),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 서울: 이오북스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levance of 「Social Economy」 Textbook and Teaching Manuals to Curriculum Standard in Elementary School

Hongsung Shin, Sunguk Shin, and Kyungmo Kim

Social economy is defined as company or organization that pursues both economic and social goals and produces certain goods, services, and knowledge based on solidarity. Social economy is different from market economy which puts top priority on profit seeking based on human selfishness.

Social economy has more developed in Europe than in the United States where market economy has dominant power. After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market failure, social economy emerged as possible alternative. In Korea, Social economy has begun to develop with the support of legal system since 1990s and is now being implemented through many local governments.

Thu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teach social economy in schools. In particula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ve produced 「Social Economy」 textbook and teaching manuals.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has produced curriculum standards of 「Social Economy」.

In this thesis, 「Social Economy」 textbook, teaching manuals and curriculum standards of 「Social Economy」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overall composition, and applicability in the fields of educ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oncept of social economy, organize appropriate data, and introduce social economy into the formal school education.

논문 투고일: 2017. 11. 30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

